

# 산자부, 「경영혁신지원모델」 중소기업에 시범제공

## 제30돌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

산업자원부는 금년 10월을 '생산성혁신의 달'로 정하고 '06. 10. 10(화)일 COEX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와 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장관, 임직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뜻 깊은 제30돌 '국가생산성혁신대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에서 생산성혁신과 노사협력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에게 포상을 시행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생산성혁신에 더욱 매진기로 다짐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개발(사업기간 : '03. 6~'08. 3)하고 있는 'On-line 기업 자가진단 서비스(ePRINS)'를 10월부터 중소기업에게 시범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경영혁신지원모델(PMS 인증제도)'과 연계한 'On/Off-line 통합 경영혁신지원모델'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역량 강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동 모델을 '상생형 경영혁신지원모델'로 발전 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제30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 시상식' 이외에도 생산성혁신의 달(10월)에 즈음하여 '생산성혁신 전략 모색을 위한 지상좌담회'를 개최(9. 26)한 바 있다.

-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우수기업 발표 및 인증서 수여' (10. 17), '생산성혁신 우수사례 지역순회 발표' (대구 10. 17, 부산 10. 19, 대전 10. 24, 광주 10. 26), '공공기관 협력적 노사관계 세미나' (10. 25) 등 생산성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한 부대행사를 추진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생산성혁신과 노사협력에 기여하고, 경영혁신을 이룩한 공로로 수상하게 된 기업·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최근('02 ~ '04)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수준에 비해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면서, 생산성혁신 기반조성을 위하여 ①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혁신 주도형 성장 시스템 구축 ②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③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기업인 및 근로자 대표로 한국농촌공사 사



장과 노조위원장이 생산성혁신을 위해 노사간 협력을 결의하는 '노사공동 선언문'을 선서하였다. 노사대표는 노사공동선언문 선서를 통해 '시장과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과 경영혁신', '노사화합을 통한 세계 일등기업으로 도약',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다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생산성혁신의 공로가 큰 유공자와 기업·단체에 대해 각각 훈장이 수여되었다. 개인유공자부문에서는 LG마이크론(주) 대표이사(조영환)가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금호폴리켐(주) 대표이사(기옥)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기업·단체부문에서는 LG 전자(주) DA사업본부, (주)대흥 R&T,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농촌공사가 국가생산성대상에서 기업·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기타 삼성SDI 심천법인, (주)휴온스, 광주광역시 남구, 현대 엘리베이터(주)에 대해 국무총리 표창(4개) 및 산업자원부장관 표창(35개)이 수여되었다.



산업지원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개발(사업기간 : '03. 6~ '08. 3)하고 있는 'On-line 기업 자가진단 서비스(ePRINS)'를 10월부터 중소기업에게 시범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힘 내년부터는 기존의 '경영혁신지원모델(PMS인증제도)'과 연계한 'On/Off-line 통합 경영혁신지원모델'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역량 강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동 모델을 '상생형 경영혁신지원모델'로 발전 시켜 나아갈 계획임

○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OECD 국제비교

- OECD 구매력평가지수(PPP) 적용, '04년 우리나라의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회원국(30개)중 23위
- ※ '03년 뉴질랜드에 이어 23위, '02년 헝가리에 이어 24위
-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04년의 경우, 미국의 52.9%, 일본의 74.4% 수준
- 우리나라 제조업은 '00~'03년 평균 美의 63.0%, 日의 84.3%, 서비스업은 '00~'03년 평균 美의 40.9%, 日의 53.4%로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수준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OECD국가중 한국의 노동생산성수준(전산업)

(단위: US\$/PPP적용, %)

년도	한국	일본	미국	한·일	한·미
'02	36,567(24위)	54,361(18위)	75,876(2위)	67.34	8.2
'03	42,494(23위)	56,553(18위)	79,893(1위)	75.15	3.2
'04	44,565(23위)	59,889(19위)	84,272(2위)	74.4	52.9

※자료 1)OECD, 「National Accounts」, '05년, '04년, '03년, 2)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05년, '04년, '03년 에서 계산함

제조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수준

(PPP적용)(단위: US\$, %)

년도	한국	일본	미국	한·일	한·미
'00	46,775	57,944	75,067	80.7	62.3
'01	48,086	57,483	75,771	83.7	63.5
'02	52,057	58,789	82,457	88.5	63.1
'03	55,400	65,832	87,975	84.2	63.0
평균	50,580	60,012	80,318	84.3	63.0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2005년 에서 계산

서비스업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수준

(PPP적용)(단위: US\$, %)

년도	한국	일본	미국	한·일	한·미
'00	28,698	54,240	70,617	52.9	40.6
'01	28,876	54,977	71,608	52.5	40.3
'02	29,932	55,584	72,397	53.8	41.3
'03	30,336	55,939	73,417	54.2	41.3
평균	29,461	55,185	72,010	53.4	40.9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2005년 에서 계산